

전남, 지역축제 경제 파급 효과 '톡톡'

지난해 23개 대표축제 610만명 방문...경제효과 3836억원 구례 산수유축제 가장 많은 90만명 방문...241억원 효과 도, 명량대첩축제 13억원 투입, 145억원 경제효과 얻어

지난해 전남에서 열린 23개 축제를 찾은 관람객이 610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축제를 통한 경제효과도 38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남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충남 아산시갑)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전남지역 23개 대표 축제를 다녀간 관람객은 610만305명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1시·군 1 대표 축제로 치러진 23개 행사를 통해 얻은 경제효과를 3836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23개 축제 개최비용만 151억9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광양 매화축제(3월 18~27일)를 시작으로 구례 산수유축제(3월 19~27일), 영암 왕인문화축제(4월 7~10일),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4월 7~10일), 신안틀림축제(4월 8~17일), 고흥 우주항공축제(7월 29~8월 2일), 나주 마한문화축제(10월 28~30일) 등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관람객 수가 가장 많았던 축제는 구례 산수유축제로 9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군은 산수유축제에 4억2000만원을 들여 241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 매화축제는 하루 짧은 축제 기간(3월 18~27일)에도 85만명이 찾아 두 번째로 관람객이 많았다. 매화축제에 들어간 비용은 3억1500만원이지만 경제효과는 567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안틀림축제는 축제 기간(4월 8~17일) 3만5206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돼 23개 축제 중 관람객이 가장 적었다.

나주 마한문화축제의 경우 1억5000만원을 들여 치러졌지만 경제효과는 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한축제의 경제효과는 23개 축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흥 정남진물축제에는 개최 비용으로만 14억4400만원을 들여 23개 축제 중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관람객 수(33만4900명), 경제효과(216억) 등은 3억1500만원의 비용으로 치러진 광양 매화축제에 못 미쳤다.

전남도가 진행하는 명량대첩축제(9월 2~4일)는 13억원을 투입, 145억원의 경제효과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명량대첩 축제를 찾은 관람객은 22만9652명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지역축제 관광객·경제효과 현황

축제명	개최 시기	개최비용 (백만원)	방문 관광객수	경제효과 (억원)
계		15,192.7	6,110,305	3,836
명량대첩축제	9.2~4	1300	229,652	145
남도음식문화큰잔치	10.21~23	848.7	170,000	695
목포 항구축제	7.29~8.2	820	59,800	242
여수 거북선축제	5.6~8	907.5	335,000	66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	9.2~4	450	260,000	52
광양 매화축제	3.18~27	315	850,000	567
나주 마한문화축제	10.28~30	150	50,000	5
담양 대나무축제	5.3~8	666	487,714	216
곡성 세계장미축제	5.20~29	300	233,261	105
구례 산수유 꽃축제	3.19~27	420	900,000	241
고흥 우주항공축제	7.29~8.2	300	66,992	53
보성 다량대축제	5.4~8	627	316,145	216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	10.27~30	850	108,745	47
장흥 정남진물축제	7.29~8.4	1444	334,900	310
강진 청자축제	7.30~8.7	1354	337,253	212
영암 왕인문화축제	4.7~10	950	210,550	78
무안 연꽃축제	8.12~15	465	185,400	96
함평 나비대축제	4.29~5.8	900	294,841	107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	9.16~9.18	305.5	270,100	163
장성 홍길동축제	5.5~7	280	100,000	60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5.4~8	740	144,000	50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4.7~10	710	120,746	92
신안틀림축제	4.8~17	90	35,206	18

*방문관광객 수 및 경제 효과는 각 축제 평가보고서에 근거함. <전남도제공>



구례 산수유축제

10일간의 추석 연휴 전남관광지 '북적'

도, 282만명 집계

전남도는 추석 황금 연휴 10일동안 전남을 찾은 관광객 수가 282만명이었던 것으로 집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5일간 82만3000명이 다녀간 것과 비교하면 243% 늘어난 규모다.

주요 관광지별로는 순천만정원에 63만 1000명, 여수 오동도 등에 30만6000명, 곡성 기차마을에 7만4000명, 강진 가우도에 5만5000명, 담양 죽녹원에 3만9000명이 다녀갔다.

연휴기간 개최됐던 곡성 심정축제, 영광 노을축제를 비롯한 25개의 다채로운 축제 및 문화행사에 많은 관람객이 찾아왔다. 또 전남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 '남도한바퀴'는 연휴 기간 엄선된 코스를 운행한 결과, 평상시(32명)보다 많은 1대당 36명이 탑승했다. 다만 관광객 300여명도 무안공

항을 통해 전세기로 전남을 방문했다.

이처럼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최장 10일에 이르는 연휴 기간을 대비해 무료 관광지 확대와 할인 이벤트를 하고, 서울 시청·나주 혁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적극 펼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정순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전남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결과 많은 관광객들이 전남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13일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개막하는 2017 전남 국제 수목 프리비엔날레와 20일 강진에서 개막하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등 대규모 행사와 3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축제, 붉게 물든 단풍을 찾아 남도의 가을을 만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가을이 내려앉은 행복 숲 체험 즐기세요



잠자리 잡기 등 프로그램 다양

"깊어가는 가을, 숲에서 곤충·잠자리 잡기 등 다양한 체험 즐기세요."

10일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 임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서 진행되는 숲체험·숲해설 프로그램이 인기다.

올 상반기 88개 기관에서 1700여명이 숲해설 교육을 받았다. 또 여름방학 기간에는 가족단위 공예체험 신설로 꽃누르미를 이용해 주자번호판, 컵받침대, 휴대폰 케이스 등을 만드는 체험이 인기몰이를 했다.

하반기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가을숲에서 잠자리채와 관찰통을 가지고 참여하는 곤충잡기 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숲해설가 직업체험, 다

양한 체험 활동 위주의 숲해설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일반인 숲해설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매타세쿼이아 길에서 가을 정취도 만끽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수시로 받고 있다.

오송귀 전남산림자원연구소장은 "다양한 계층·연령대별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내년 5월 '치유의 숲' 개장과 함께 직장인·장애인·어린이·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생산소득팀 061-338-4232. /박정욱기자 jwpark@

'싸움소들의 한판 대결'...정읍소싸움대회 26일 개막



싸움소들의 한판 대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제 21회 정읍 민속소싸움대회'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정읍시 동학혁명기념관 특설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회는 대백두(851kg 이상), 소백두(771~850kg), 대한강(726~770kg), 소한강(671~725kg), 대태백(636~670kg), 소태백(600~635kg) 등 6개

체급으로 진행된다.

추첨에 의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 소에게는 최고 6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행사장에서는 정읍의 특산품인 '단풍미인 한우' 등을 시식할 수 있는 행사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정읍축산물축제'도 열린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전원주택

- 장성 북하면 장성호 백암사 인근 2803㎡ 환경좋은 1억3천
- 화순 동북면 가수리 2175㎡ 은행 2300 요양주택 질 적합 4800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평안한 분위기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양들개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원도 약산대지 1266㎡ 주택 27평과 별채 황토방 산 12393㎡ 포함 1억8천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인10년할 4억
- 화순읍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여평도 사용 북측주택 60여평 판백나무 준공 갤러리·커피숍·식당 적합 3억8천

투자·매도·교환

- 남구 임암동 상업지 주차장부지 890㎡ 투자에 양호 34억
- 북구 양산동 대지 1317㎡ 빌라·다세대적합 10억3천
- 영암 삼호읍 땅 1212㎡ 건물 925㎡ 은행2억5천 매도4억3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담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신축중인 아파트단지 입구 상가분양

- 북구 양산동 아파트 1584세대 입구 상가 22평형~80평형 상가 분양, 상담 바랍니다

상가건물

- 계림동 상업지 대지 106㎡ 북측건물 122㎡ 식당·카페적합 1억6600
- 농성동 4차선대지 132㎡ 건물 237㎡ 은행 2억5천 매도 6억4천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물 997㎡ 병원·식당 등 적합 24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영암 삼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사가 2억3천 매도 1억7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안근 1억7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물 971㎡ 27실 6억7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